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양식 - 소신지서 강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스가랴 9:1-8)



모세가 광야에서 잦은 고통과 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 느보 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 곳을 모두 네 백성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비전을 받습니다.

1.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

“여호와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1절).

여기에 ‘말씀’은 히브리어로 ‘맛사’라고 읽으며 ‘짐을 지운다’, ‘심판한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말씀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게 할 것이다, 혹은 심판이 머물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하드락과 다메섹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며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드락은 오늘날의 수리아를 말하며 다메섹 역시 수리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는 개인, 국가에게 무거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1절).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되므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은 BC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점령할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희랍주의자로서 그는 점령한 도시 마다 헬라문화를 심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중요한 공헌 중 한 가지는 언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이 일은 후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며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언어의 통일로 세상 사람들은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기독교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로를 만들었고 통신망, 우편제도를 만들어 바울의 서신이 여러 지역으로 전달되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두로는 당시 시돈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상업의 중심지였고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부유하면 교만한 법입니다. 두로도 예외가 아니며 그 곳은 교만이 짙 차있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다” (3절).

교만한 두로는 재물을 모으고 요새를 건축하며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마침내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4절).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두로는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로가 멸망할 당시 약 6천~7천명이 학살을 당하고, 2천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으며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고 성이 불타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 국가의 죄,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2.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5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국권을 와해시키시기도 합니다. 비록 가증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스글론은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스글론이 멸망한 것도 알렉산더 대왕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종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6절).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의 고배가 끊어질 때 하나님

께로 돌아올 것이므로 하나님은 먼저 교만을 꺾으십니다.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한 폴슨은 미국 명문대의 법과를 나오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는 비로소 교만의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지금은 평신도 사역자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7절).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악한 짓을 하던 블레셋은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한 우상의 제물을 먹던 입은 제거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선조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예이며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7절).

여부스는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부스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느리심과 보호함을 받습니다. 국가들이 소동하고 혼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안보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을 사경회 1주 앞으로 다가와

9월6일(월)-9일(목) 새벽 5시 본당에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을 사경회가 1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교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교회가 갖는 가을 사경회는 참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조국의 앞날을 위해, 우리 가정에 산적한 기도제목 그리고 나 자신의 회개와 소명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이번 가을 사경회에는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담임)가 서게 되며 기간 중 매일 새벽 5시부터 본당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 강사로 서실 이수영 목사와 서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바란다.



이수영 목사 약력

-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철학과(문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문학석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교역학 석사)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교(신학박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 석천제일교회 담임목사
- 영락교회 협동목사
- 현 : 한국 칼빈학회 회장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 바자

9월15일(수)-17일(목)까지 3일간 계속된다

9월15일(수)부터 3일간 열린 이웃사랑·교회사랑 열린 바자가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바자를 통해 조성된 모든 것은 이웃사랑과 교회 헌당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만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더욱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일부 교구에서는 바

자에서 판매할 물품들을 들여와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 이번 바자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이롭다운 것을 바쳐 충성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새가족부 홈커밍데이

9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8층 만나홀

9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8층 만나홀에 새가족부 홈커밍데이가 열린다.

참석 대상은 작년 8월 31일 이후 등록하신 새가족과 당회원, 각 교구의 교구장, 간사 및 다락방장, 각 선교회 및 전

교회 회장이다. 참석 대상자는 이번 새가족부 홈커밍데이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새가족들을 격려해 주고 기도로 성원해 주기 바란다.

군복무자를 위한 9월 중보 기도회 개최 · 2004 기독교인대회 민박가정 확정

중보기도회-9월5일(주) 오후 3시30분 403호에서

매일 군복무중인 젊은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힘쓰고 있는 우리교회는 9월 중보기도회를 9월5일(주) 오후 3시 30분 403호에서 갖는다. 우리교회가 군부대에 준 선교사로 파견한 젊은이들이 주안에서 강건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의 전령이 되도록 기도한다. 군에 입대한 자녀가 있는 가정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다.

한편 오는 9월14일에 열리는 2004 세계 기독교인대회에 참석할 이들이 이 대회가 끝난 후 18일(토)과 19일(주)

양일간 묵게 될 민박가정이 확정되었다. 우리교회가 담당할 12명의 참석자들은 19일(주) 우리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

- 현재까지 민박을 신청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김삼연 집사(1교구), 이진구 집사(1교구)
 - 김세재 장로(3교구) 오정수 장로(9교구)
 - 김형택 집사(12교구), 임상현 장로(12교구)
 - 신용식 장로(14교구)

9월 다락방 다시 모인다

9월3일(금)에 다락방 별로 모여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전국이 달아올랐던 8월이 다 지나가고 곧 9월이 시작된다.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로 잠시 모임 갖기를 중단하였던 우리교회는 9월3일(금)부터 다시 다락방 모임을 다락방 별로 갖기로 하였다. 각 교구간사들과 다락방장들은 교구와 다락방 식구들을 점검하여 다시 모이는 다락방을 통해 9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질 가을 사경회와 이웃사랑·교회사랑 열린 바자가 순조롭게 준비되도록 한다.

2004후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 중

오늘 9월에 개강하는 열린 프로그램의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어 지난주일 주보에 간지로 나간 2004후반기 열린프로그램 신청서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주중에도 교회에 와서 접수를 하고 가는 성도들도 있다.

성도와 이웃 주민을 위해 누구나 마음대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있는 열린프로그램이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후반기에도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지도록 기도한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2004 기독교인대회 열린다

이갑진 장로 (비전2020운동위원장)



매 10년 주기로 열리는 2004 세계 기독교인대회가 한국 기독교인 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9월 14일(화)부터 18일(토)

까지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세계 150여 개국으로부터 730여명에 이르는 기독교인 대표와 1200 여명에 이르는 내국인(군, 예비역, 민간교회) 등 총 2000여명이 참가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60:1)는 주제로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3:28)가 되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중윤 목사님은 9월16일 저녁예배(밤8시)에 설교하게 된다. 또한 중앙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몰도바로부터 참가하는 대표자 12명이 대회가 끝나는 9월18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7가정에서 민박하고, 다음 날인 19일(주일)에는 서울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한다.

우리 모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맞이하고, 뜻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롭다운 신앙의 본을 받아가게 하자. 세계 각지에 파견 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그 나라 기독교인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복음 전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는 가슴 뛰는 전도사역이 이 대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돌아보는 서울교회 II

- 반포동 시대 -

다음은 현당을 앞둔 기획기사로 서울교회 10년사에서 발췌, 3회에 걸쳐 내보낸다.

창립 이후 2년 반 동안 논현동 예배당을 쓰던 우리 교회는 1994년 5월 반포동 시대를 열었다. 점차 증가하는 교인을 논현동 건물로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 영구적인 예배당을 지을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보다 넓고 나은 환경을 찾아 예배처소를 옮긴 것이다.

새 예배당은 서울 서

초구 반포동 737-3번지로 논현동 예배당에서 강남대로를 사이에 둔 맞은 편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다. 이 건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이필우 전 국회의원의 소유지에 건축한 것이었다. 이 전 의원은 새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고 교회는 이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였다.

반포동 예배당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상 4층, 지하1층인 새 예배당으로 대지 면적이 969.90㎡, 연면적 2,721.30㎡로 논현동 건물의 거의 2배가 되는 공간이었다.

게다가 옥상을 간이식당으로 개조하면서 공간 활용을 더욱 넓게 할 수 있었다.

교회는 94년 5월1일 입당 감사예배를 드린 이래 이 예배당을 2000년 12월 25일 대치동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6년 7개월여 동안 사용했다.

본격적인 반포동시대를 연 지 불과 1년여 뒤인 1995년 9월 3일에는 서울교회 당회와 제직회가 새로 건축할



▶ 반포동 시대를 시작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대지가 확정된 다음 달인 95년 10월 18일 대지구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96년부터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열기 시작해 입당 전까지 6차례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반포동 시대는 서울교회가 IMF의 환란을 겪으면서 서도 꾸준히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며 새 시대를 준비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 교회는 서울시민대학을 열어 IMF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창업성공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입당감사예배시 축도하는 이종윤 목사.

교육과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굳건히 세워 나가며 창립 이래 매년 2번씩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열었고 김치신학세미나도 거의 매년 개최했다. 농어촌 100 교회지원 운동도 반포동 시대부터 매년 추진했고 이밖에 흥해작전, 비전2020운동, 사명자대회 등으로 중단 없는 은혜의 행진을 이어갔다.

예배당의 대지를 확정했다. 위치는 지금의 예배당 장소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부근의 210번지였다. 그동안 교회는 당회원을 중심으로 대지를 확정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등 무려 100여 군대를 물색하고 다녔다. 수도권 외의 쓸 만한 대지는 모조리 답사를 했는데 이를 위해 당회원들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류종관 집사(10교구)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내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대치동의 서울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저는 72년 아내 진선자 집사와 결혼을 하고 이미 예

수님을 영접하고 있던 아내의 전도를 받아 결혼한 이듬해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3년 서울로 상경해 아이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91년 서울교회가 설립되고 92년부터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준비할 때부터 나의 맘은 남모르게 설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마을인 고향에 교회당을 하나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있었는데, 어찌 하든지 교회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진 집사도 교회 건축을 위해 어떻게 헌신을 할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가족이 서울로 상경할 때의 재산은 형님이 주신 단돈 5만원이었습니다. 이삿짐도 변변히 없어 트렁크 하나 달랑 들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쁨진 것을 차곡차곡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서는 노력한만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하고 의논 끝에 살고 있는 집 외에도 한 채 가지고 있던 영동아파트를 팔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일이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제 서울교회가 현당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저의 마음은 벅찰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드린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결혼 전 질병으로 인하여 벌써 죽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살려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으며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장성하여 사회에서 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내년 서울교회가 현당식을 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마지막 힘을 모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 창립이래 계속되어온 목회자 세미나와 봉사자들



▼ 1996년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회 개최



천국시민 양성 - 제4회 새가족부 홈커밍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지체들



노승성 장로(새가족부부장)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지체들입니다. 새가족부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인 제4회 홈커밍데이를 준비하여 지난 1년 동안 서울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따뜻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민족의 길을 밝히는 등대이며 시은소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이웃으로 선배로 또 동역자로 맞이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서울교회의 가족이 된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도 확인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들과 이번 홈커밍데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제3회 새가족부 홈커밍데이

천국일꾼 양성 - 봉사의 손길을 찾습니다

누가 발을

씻겨줄까요

이관규 장로(식당관리부)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남을 섬기시는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명과 사명감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후에 서울교회 성도들의 애찬은 정말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천명이 넘는 식사는 많은 일꾼들의 땀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섬기시는 본을 받아 봉사자들의 헌신을 바랍니다.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참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한시간씩이라도 가능합니다. 사무국이나 8층 만나홀로 연락주세요.

천국일꾼 양성

서적부에서 피는 아름다운 봉사의 꽃



10년째 도와주고 계시는 함은희 권사를 비롯해서 여현진 고정숙 김인숙 김현정 주화인 권사 이분들이 서적부 봉사의 주 멤버들이다.

교회 입구 옆 한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공간 서적부, 그러나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테이프를 만들어내는 작업실이며 성경을 낱알이 풀어 놓은 이종윤 목사님의 저서가 가득한 아름다운 장소이다.

한 개의 테이프가 완성되기까지는 편집과정을 거친 후 대량 녹음을 한 후 서울교회 마크가 인쇄된 기본 스티커와 제목 스티커를 테이프와 겹표지에 붙인 후 투명 케이스에

넣으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기본 스티커를 붙이는 일은 주로 주일날 이뤄지는 데 소요시간은 봉사자들이 모두 모여 작업할 때 3시간이 넘게 걸린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 하므로 긴장이 많이 되다보니 손이 빠르고 능숙한 함은희 권사가 주로 담당하게 되고 그 외에 스티커를 붙이기 쉽도록 떼어 주는 분 붙여진 테이프가 상위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전에 박스에 날렵하게 담는 분, 붙이기 전에 테이프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분, 작업 후 수북이 쌓인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분들이 함께 어울려 일을 마치고 나면 서적 및 성경보급, 우편물 발송 준비작업 등 다양한 일이 주일날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서적부는 모든 봉사자들이 각자 속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성경공부하고 서적부에서 봉사하기 까지 팽이 돌듯이 부산스럽다.

귀중한 말씀이 전국 각지와 해외에 까지 보급되는 기쁨과 기대 때문에 언제나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 장소가 비좁아서 작업할 때가 많음에도 건강을 감시하며 작업을 하다가 의자 하나에 두 명이 몸을 붙이고 앉아 끝까지 일을 마치는 그 수고가 하나님께 열납될 것이다.

봉사자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손길이 말씀과 함께 담긴 말씀 테이프가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의 영을 울리고 전세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신동기 (편집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1일(화)에 총회 주기도문 - 사도신경위원회를 소집한다. 9월2일(목)에는 연세조천기도회, 대치동 교회연합회, 서울여대 이사회, 9월3일(금) 세계로잔대회 한국대표단 모임을 갖는다.
- 고성진 교수(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김자경 오페라단 신임 단장으로 임명
- 이사: 고석태 장호정 집사(5교구)
사당3동 롯데2차@ 202-602 T.536-7089
- 주간 식당봉사: 배드로남선교회(8월29일) 바울선교회(9월5일)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강남 케이블 TV CH4 - 주일 저녁 9시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사경회 (9월 6일~10일)와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작정)을 위하여
2. 이웃사랑 · 교회사랑 바지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26학기 목회자세미나와 성경대학 ·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5.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